

## 북한 기업 경영자산의 구분과 관리

전경주 | 북한대학원대학교 | jhonus78@gmail.com

최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시정연설에서는 “원료와 자재, 동력과 설비들을 충분히 생산 보장하는 것을 경제사업의 선차적 해결 문제”라고 하면서 이를 위해 금속, 화학 공업의 발전을 강조<sup>1)</sup>하였는데, 이것은 경제정책의 핵심이 원자재와 설비의 정상 보장을 통한 경제의 자립성 강화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본 자료에서는 북한 기업의 운영에서 핵심이 되는 경영자산의 형태를 구분하고 그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려 한다. 자료로는 관련 도서와 문헌, 북한 관련법, 간행물 등을 참고하였다.

일반적으로 자산은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유형·무형의 유가치물(有價物)로서 유형·무형의 물품·재화나 이에 대한 권리와 같은 가치의 구체적인 실체(實體)를 말하며 재산과 같은 뜻으로도 쓰인다. 북한 기업은 자산을 재산<sup>2)</sup>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국가재산과 협동단체에 대한 재산 관리를 국가적 통제하에서 시행하고 있다. 기업 회계상의 자산은 자본의 구체적인 존재형태(存在形態)를 의미하며 회계적으로는 고정자산<sup>3)</sup>과 유동자산<sup>4)</sup>으로

1) 『로동신문』, 2021. 9. 30.

2) 재산은 소유 형태에 따라 국가재산, 협동단체 재산, 개인재산으로 구분되며, 국적에 따라 국가재산과 외국 재산으로 구분되며, 사명과 역할에 따라 생산재산과 유동재산으로 구분된다.

3) 고정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되지 않고 기업 내부에서 장기간 사용하는 회전 속도가 느린 자산을 말한다. 이것은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으로 나누어지는데 유형고정자산은 토지·건물·기계장치·선박 등으로 이루어지며, 무형고정자산은 영업권·상표권·특허권·실용신안권(費用新案權)·지상권(地上權)·의장권(意匠權)·광업권 등으로 구분된다.

4)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회전 속도가 빠른 자산이며 당좌자산(當座資産)과 재고자산(在庫資産)으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당좌자산은 바로

나누어진다. 북한에서 경영자산은 자금회전방식에 따라 고정재산과 유동재산 및 유통재산으로 구분되며, 존재 방식에 따라 실제적 재산과 명목상 재산(철수재산)으로 구분한다. 실제적 재산은 경영활동 과정에서 고정재산이나 유동 및 유통 재산과 같이 재생산과정에 배치되어 실제로 기능하는 재산이며, 명목상 재산은 재생산과정에서 기능이 끝나 경영활동에서 분리되었거나 향후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계산상으로만 존재하는 재산인 철수재산이다.

〈표 1〉 경영자산의 분류<sup>5)</sup>

존재 방식에 따른 분류	자금회전방식에 따른 분류
실제적 재산	고정재산
	유동재산
	유통재산
명목상 재산	철수재산

북한에서는 재산에 대한 등록, 실사, 이용 등 재산 관리가 국가의 통제하에 시행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북한 기업의 경영자산 형태인 고정재산, 유동 및 유통 재산, 철수재산과 그 관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려 한다.

## 1. 고정재산

고정재산은 현물 형태를 유지하면서 생산적 또는 비생산적 기능을 수행하는 재산으로<sup>6)</sup> 국가의 통제하에 이용과 관리가 진행된다. 고정재산은 생산에 복무하는가 또는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생산적 고정재산과 비생산적 고정재산으로 분류되며, 현물 형태에 따라 건물, 구축물, 전도 장치, 기계설비, 공구 지구, 비품, 종자 집짐승, 부림 집짐승, 나무, 기술문건 및 도서 등으로 구분된다. 고정재산은 새로 발생한 시점부터 등록, 이관, 대여, 보수, 실사, 폐기 등 여러 단계의 관리가 시행된다. 고정재산과 관련한 계산자리<sup>7)</sup>(계정과목)로는 ‘고정재산’〈111〉, ‘고정기금’〈211〉<sup>8)</sup>, ‘고정재산 폐기’〈112〉, ‘고정재산 마멸’〈212〉이 있다.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현금·예금·받을어음·외상매출금, 일시적 소유를 목적으로 한 유가증권 등으로 이루어지며, 재고자산은 제조·판매 등의 과정을 거쳐 현금화할 수 있는 것으로, 상품·원재료·재공품(在工品)·반제품 등으로 구성된다.

5) 정석우 외, 『북한회계의 이해』, 삼일인포마인, 2019년 1월, p.37.

6) 『재정금융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p.73.

7) 북한에서는 계정과목을 계산자리로 표기하고 있다.

8) ‘고정기금’〈211〉 계산자리는 고정재산이 생길 때 그의 자금 원천을 밝혀주는 계산자리이다.

〈표 2〉 경영자산의 분류II

경영 재 산	실제적 재 산	고정자산 <sup>9)</sup> (현물 형태에 따르는 구분)	건물	생산용 건물, 비생산용 건물	
			건축물	지하구조물, 관개 및 강하천 구조물, 상하수도구축물, 운수시설물, 저장 및 적재 건축물, 문화시설물, 난방시설물, 기타 건축물 등	
			전도 장치	송배전 선로, 통신 및 방송 선로, 상하 수도관, 열난방관, 각종 수송관, 오수 및 우수관 등	
			기계설비	보일러 및 원동기, 전기설비, 광산 및 탄광 설비, 야금, 금속절삭, 단조 및 제과, 펌프 또는 공작기계, 화학, 건재, 목재 가공, 종이 생산, 식료품 가공, 농업, 건설, 운수, 권양, 통신 및 방송, 영화, 제약, 계산 및 사무용 실험 및 측정기기 등	
			공구 지구	일반공구, 측정기구, 실험기구, 소농기구, 각종 지구 등이 포함. 다만, 절삭공구, 목형기구, 지구 등은 고정자산에 속하지 아니함.	
			집짐승	부림 짐승, 꿀벌, 관상용 동물 등 다만, 새끼동물, 후보 집짐승, 살찌우기 동물은 고정자산에 속하지 아니함.	
			나무	과일나무, 호두나무, 뽕나무, 공원 나무 등 경제림, 유지림, 관상용 나무와 가로수 등	
			기술문건 및 도서	신문, 잡지, 그림책을 제외한 사들인 도서와 과학기술 문건, 설계문건 등	
			비품	생산용 비품과 사무 및 경리용 비품	
			유동자산 (현물 형태에 따르는 구분)	물자재산 (저장품 형태)	연료, 원료, 자재, 고정자산이 아닌 소 공구와 지구, 경영용 물자, 씨앗, 비료, 농약, 의약품 등
	미성품 <sup>10)</sup> (가공 중 형태)	생산과정에 있는 미성품과 반제품, 미완성건물과 미완성 대보수 등			
	반제품 <sup>11)</sup> (가공 예정 형태)	자체 생산 반제품, 구매한 반제품			
	유동자산	외부에 판매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는 완제품, 발송한 제품, 화폐 재산, 채권			
	명목상 재 산	철수재산	다음 결산기 지출	비용지출로 처리된 재산	다음 결산기 비용, 건설 및 대보수비, 생산 준비비, 사업비, 예산지출
			손실금	손실로 소멸한 재산	예산지출, 재산피해 손실, 지난해 손실

자료: 『재정금융사건』에 기초하여 저자 작성.

기업이 새로운 고정자산을 확보하게 되면 기업은 반드시 그것을 등록하여야 한다. 새로운 고정자산은 국가투자나 기업 자체 투자로 확보할 수 있다. 국가투자로 확보한 고정자산이든 자체 투자로 획득한 고정자산이든 반드시 고정자산 등록단계를 거치게 된다. 다만, 등록 당시 국가투자인지, 자체 투자인지를 구분하여 현물 형태별로 나누어 등록을 진행한다. 또한

9) 백관석, 「고정자산 감가상각의 대상을 규정하는 요인」, 『경제연구』, 2호, 1991, p.48.  
10) 가공을 완전히 끝내지 못하거나 아직 가공하고 있는 생산물을 가리킴.  
11) 일정한 생산단계에서 가공이 끝났으나 다음 가공단계를 더 거쳐야 완제품이 될 수 있는 중간생산물을 가리킴.

고정재산 등록은 기업의 내부 등록과 은행 등록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기업의 현물등록은 경리처와 같은 현물관리부서에서, 화폐적 등록은 재정부서에서 진행한다. 이것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기업에 고정재산이 생기면 기업은 고정재산을 등록하게 되는데, 우선 재정부서에서 ‘고정재산 등록대장’에 화폐적으로, 현물 형태별로 나누어 등록을 진행하며, 동시에 해당 기업의 경리부서에 현물등록을 한다. 또 한편으로 국가적 통제를 위해 ‘고정재산등록보고서’를 작성하고 은행에 제출하여 은행등록을 하게 된다.

〈표 3〉 고정재산 등록의 분류<sup>12)</sup>

구분	고정재산 등록	
	집행 단위에 따르는 구분	기업 내부 등록
기술 경제적 내용에 따르는 구분	현물등록 (현물관리부서)	화폐적 등록 (재정부서)

- 국가투자로 고정재산이 생겨났을 때 고정재산 등록

- 차변 <111/1> (고정재산/국가투자) \*\*\*
- 대변 <211/1> (고정기금/국가투자) \*\*\*

- 자체 투자로 고정재산이 생겨났을 때 고정재산 등록

- 차변 <111/2> (고정재산/자체 투자) \*\*\*
- 대변 <211/2> (고정기금/자체 투자) \*\*\*

- 상급 기관에 의하여 다른 기업에서 사용 중인 고정재산을 이관 받았을 때 고정재산 등록

- 차변 <111/1> (고정재산/국가투자) 50,000
- 대변 <211/1> (고정기금/국가투자) 46,000
- 대변 <212/1> (고정재산 마멸/국가투자) 4,000

고정재산에 대한 화폐적 등록을 현물 형태별로 구체화하기 위하여 기업은 세분 계정과목을 자체로 설정하여 등록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12) 『재정금융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p.77.

- 국가투자로 건물이 생겨났을 때 고정재산 등록

차변 <111/1/1> (고정재산/국가투자/건물)\*\*\*

대변 <211/1/1> (고정기금/국가투자/건물)\*\*\*

- 자체 투자로 기계가 생겨났을 때 고정재산 등록

차변 <111/2/3> (고정재산/자체 투자/기계설비)\*\*\*

대변 <211/2/3> (고정기금/자체 투자/기계설비)\*\*\*

외화로 고정재산을 구매한 경우 등록가격을 바로 정하는 것은 감가상각금의 규정 및 폐기 시 자금 처리에서 필수적인 문제로 제기된다. 결제환율이 계속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 당시의 결제환율로 고정재산을 등록하면 이관과 폐기 등 여러 공정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므로 북한 기업들에서는 고정재산의 등록과 폐기 등 고정재산 관리를 국가 기준환율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분 계정과목도 설정하고 있다.

- 자체 투자로 200유로짜리 기계를 사온 경우 고정재산 등록

차변 <111/2/3/1> (고정재산/자체 투자/기계설비/유로) 24,000 외화 원

대변 <211/2/3/1> (고정기금/자체 투자/기계설비/유로) 24,000 외화 원

- 자체 투자로 200달러짜리 기계를 사온 경우 고정재산 등록

차변 <111/2/3/2> (고정재산/자체 투자/기계설비/달러) 20,000 외화 원

대변 <211/2/3/2> (고정기금/자체 투자/기계설비/달러) 20,000 외화 원

외화로 구매한 고정재산은 등록 기준이 있다. 가격이 1유로 이상이면서 내용연한이 1년 이상인 것만 고정재산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고정재산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정재산 등록에서 감가상각의 대상을 규정하는 문제는 필수적으로 제기된다.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예산제 기업의 비생산적 고정재산은 감가상각의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으며, 비록 생산적 고정재산이라고 하여도 종자 집짐승, 꿀벌, 나무와 같이 시초 가치가 점점 마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는 고정재산도 감가상각의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는다.<sup>13)</sup>

이 밖에도 고정재산의 이관과 대여, 폐기<sup>14)</sup>등의 고정재산 관리도 같은 원리로 진행한다. 다만, 고정재산 이관 시 ‘고정재산 이관인수 조서’를, 폐기 시 고정재산 폐기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승인받은 경우에만 진행된다. 고정재산 마멸과 관련하여 재정관리실천에서는 총 마멸대상 가치(가치형태)를 내용연한으로 나누고 연평균마멸액에 기초하여 연 감가상각률을 제정한 후 마모된 가치(가치형태) 부분에 대해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sup>15)</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정재산 관리는 고정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장악, 일상적인 점검·설비에 대한 담당 관리, 유지보수와 대보수에 대한 관리로 종합할 수 있다. 고정재산의 등록과 관련하여 기업의 현물 관리부서인 경리부서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기업 재정부서와의 협동하여 고정재산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며 이와 관련한 고정재산 등록보고서를 해당 거래 은행의 고정재산 관리부서에 제출한다. 해당 은행 부서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기업에 재산 실사를 진행하여 은행 자료와 대조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즉, 고정재산에 대한 국가적 관리는 행정적 관리와 재정은행 체계에 따라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고정재산에 대한 행정적 관리는 고정재산의 중요성에 따라 고정재산에 대한 등록, 보수, 이관인수, 폐기 등 고정재산 관리의 전반 내용을 장악·지도, 감독·통제하는 제도와 질서이다. 대보수를 진행할 때 비생산적 고정재산의 대보수자금은 기업이 국가에 낸 순소득을 원천으로 하여 진행하며 유지보수도 예산자금으로 진행하게 된다. 국가투자에 의한 생산적 고정재산의 경우, 이전에는 기업이 적립한 감가상각금으로 대보수 주기에 따라 대보수를 진행하고 유지보수는 기업의 이윤을 원천으로 하여 진행하였다.<sup>16)</sup> 2020년 신설된 감가상각금 예산 수입 항목<sup>17)</sup>을 놓고 보면, 대보수자금은 기업에 적립하지 않고 국가 예산에 감가상각금 형태로 집중적으로 동원했다가 다시 기업에 보장해 주는 형태로 바뀐 것으로 해석된다.

## II. 유동재산 및 유통재산

유동재산은 생산단계에서 기능하는 경영재산으로, 단 한 번의 생산순환에 참여하여 자기의 가치 또는 가치형태를 새로운 생산물에 전부 이전시키는 재산이다. 유동재산은 소유 형태에

13) 백관석, 「고정재산 감가상각의 대상을 규정하는 요인」, 『경제연구』, 2호, 1991, p.48.

14) 재정금융사전(1995)에서는 “기업에서 고정재산을 폐기하려 할 때는 위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해당 은행과 합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구, 기구 비품 등은 은행과의 합의 밑에 기업 자체로 폐기한다”라고 밝히고 있다(p.85).

15) 허철환, 「고정재산에 대한 재정관리의 중요한 내용」,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경제학, 2015, 제1호, pp.79-81.

16) 허철환, 「고정재산에 대한 재정관리의 중요한 내용」,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경제학, 2015, 제1호, p.81.

17) 이종규(2021)는 “북한 당국은 2014년부터 감가상각금을 수입 항목에서 제외하는 대신, 재산 판매 및 가격 편차 수입금, 기타수입금, 특수지대수입금을 포함한 바 있는데, 2020년에는 이들 모두를 ‘넣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 국가재산과 협동단체 유동재산으로, 부문에 따라 공업, 농업, 기본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부문 유동재산으로, 지역에 따라 도, 시, 군 또는 도시와 농촌, 해안지대와 내륙지대, 공업지대와 농업지대, 농업지대의 하위 분류인 별방지대와 중간지대, 산간지대의 유동재산으로, 현물 형태에 따라 물자재산, 미성품, 반제품으로 구분된다.

〈표 4〉 유동재산의 분류<sup>18)</sup>

구분	유동재산	
소유 형태에 따르는 구분	국가재산, 협동단체 재산	
인민경제 부문에 따르는 구분	공업, 농업, 기본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부문	
지역에 따르는 구분	도, 시, 군	
	도시와 농촌, 해안지대와 내륙지대, 공업지대와 농업지대, 농업지대의 하위 분류인 별방 지대와 중간지대, 산간지대	
현물 형태에 따르는 구분	물자재산 (저장품 형태)	원료, 자재, 연료, 고정재산이 아닌 소 공구와 지구, 경영용 물자, 씨앗, 비료, 농약, 의약품 등
	미성품 (가공 중 형태)	생산과정에 있는 미성품, 미완성건물과 미완성 대보수 등
	반제품 (가공 예정 형태)	-

자료: 최금희(1999)에 기초하여 저자 작성.

유동재산은 기업의 생산과정에 따라 여러 현물 형태로 구분되는데 물자재산, 미성품, 반제품으로 구분된다. 물자재산은 생산에 동원되는 노동 대상으로서, 그것은 생산순환 과정에서 미성품으로 그 현물 형태가 변하고 이러한 미성품은 생산과정이 끝나가면서 다시 완제품 또는 상품으로 그 현물 형태가 변한다.

물자재산은 저장품 형태의 재산으로, 여기에는 연료, 원료, 자재, 고정재산이 아닌 소 공구와 지구, 경영용 물자, 씨앗, 비료, 농약, 의약품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원료 및 기본 자재에는 구매한 반제품이 속하는 것이 특징이다. 반제품은 자체 생산 반제품과 구매한 반제품으로 구분되는데 자체 생산 반제품은 미완성생산에, 구매한 반제품은 원료 및 기본 자재에 속하여 계정과목 관리를 한다.<sup>19)</sup> 보조 자재는 생산물의 실체를 이루지는 못하나 생산과정을 촉진하거나 생산의 정상적 진행 및 보조에 사용되는 자재로서 기계설비에 바르는 윤활유, 식물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감, 표백분, 풀 등과 같이 생산물의 기본실체를 이루지는 못하나 생산물의 생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자재를 말한다. 보조 자재에는 기계유와 같이

18) 최금희, 「유동재산의 분류와 구성분석」, 『경제연구』, 1호, 1999, pp.41~44.  
19) 최금희, 「유동재산의 분류와 구성분석」, 『경제연구』, 1호, 1999, pp.41~44.

노동 도구의 이용에 쓰이는 것, 도금용 자재와 같이 생산물의 속성을 변화시키는 데 쓰이는 것, 조명용 자재와 같이 노동조건에 보장에 쓰이는 것이 있다. 실무적으로는 원료 및 기본 자재와 보조 자재,<sup>20)</sup> 유지보수 자재, 기타 자재 등 자재들을 합쳐서 ‘자재’〈121〉 계정과목으로 처리한다. 이 밖에 ‘소 공기구 비품’〈123〉일 때 고정재산에 속하나 가치(가치형태)도 작고 내용연한도 짧으므로 유동 재산으로, ‘노동 보호 물자’〈125〉, ‘경영용 물자’〈126〉일 때 보조 자재와 같으나 내용의 중요성으로 하여 따로 갈라 계정과목을 설정한다.

미성품은 가공을 완전히 끝내지 못했거나 아직 가공 중인 생산물을 말하며 여기에는 생산과정에 있는 미성품, 미완성건물과 미완성 대보수 등이 포함된다. 반제품은 일정한 생산단계에서 가공이 끝났으나 다음 가공단계를 더 거쳐야 완제품이 되는 중간생산물이다.

기업들의 유동재산은 기업들 간의 주문계약<sup>21)</sup>을 통해 자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김철민(2018)은 “생산물 유통은 생산에 필요한 수십만 종에 달하는 물자를 전국의 수많은 공장, 기업들에 보장하는 사업으로서 대단히 방대하고 복잡하며 이것을 중앙이 다 혼자서 틀어쥐고 맞물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로부터 중앙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물자들만 직접 맞물려 주고 다른 물자들은 총체적인 유통 규모만 틀어쥐고 구체적인 맞물림은 아래 단위들에 맡기어 창발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밝히고 있다.<sup>22)</sup> 기업들의 계획권이 확대되면서 기업은 기업체 지표에 대해 직접 계획을 세우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고 생산물 유통의 담당자가 되었다. 주문계약에 의한 생산물 유통에서는 중앙지표에 의한 생산물 유통이 기업체 지표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이 존재한다. 이 원칙 아래서 주문 계약에 의한 생산물 유통에 대한 통제가 시행되고 있다. 김철민(2018)은 “중앙지표의 생산물생산에는 중앙지표의 물자와 기업체 지표의 물자가 동시에 이용되는데 모든 기업체는 기업체 지표를 주문계약에 따라 유통함에 있어서 중앙지표의 생산을 위한 주문계약을 먼저 맺고 이행한 다음 기업체 지표의 생산을 위한 주문계약을 맺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국가는 신설기업과 중요대상 기업체들에 대한 유동자금을 고정자금과 마찬가지로 국가 예산 체계를 통하여 공급해 준다.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유동자금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거나 은행대부, 유휴화폐 자금을 이용하여 충당하도록 하고 있으며<sup>23)</sup> 생산 단위에서 원자재 보관 단축,<sup>24)</sup> 필요한 물자만 구매하는 등과 같이 유동자금 이용에 대해 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20) 연료는 가능상으로 보면 보조 자재에 속하나 경제에서 노는 역할의 중요성으로 하여 따로 가른다.

21) 김철민(2018)은 “주문계약에 의한 생산물 유통에서는 기업체들이 주문과 그에 대한 할의, 계약체결, 물자 판매와 구입, 물자거래에 따르는 결제, 수송과 보관 등 유통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22) 김철민, 「주문계약에 기초한 생산물 유통의 본질」, 『경제연구』, 2호, 2018, pp.24~25.

23) 강철수, 「사회주의 기업체들에서 유동자금 보장조직의 중요 요구」, 『경제연구』, 3호, 2016, pp.50~51.

24) 김철남, 「기업소재산의 순환과 그 촉진」, 『경제연구』, 1호, 2018, pp.38~39.

있다.

유통재산은 유통단계에서 기능하는 경영재산으로, 유동재산의 변화된 형태이다. 유통재산은 외부에 판매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완제품, 발송한 제품, 화폐 재산, 채권으로 분류된다. 국가는 기업의 유통자금 절약을 위한 유통기한 단축, 수 공급의 맞물림 등의 활동과<sup>25)</sup> 기업 생산물의 실현을 매개하는 화폐 자금의 크기를 타산<sup>26)</sup>하는 등 화폐 재산관리 전반에 대한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기업의 화폐 재산과 관련한 계정과목은 현금<161>, 은행예금<162>, 외화예금<163>, 기타 화폐 재산<164>이며 기업 회계부서에서 <은행예금 계산 장부>, <현금 출납 장부>, <기타 화폐 재산<sup>27)</sup> 장부>를 통한 기록계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북한 당국은 기업들이 현금관리 규정에 따라 규정된 한도 내로만 현금을 보유하도록 하는 엄격한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 III. 철수재산

철수재산은 기업의 경영자산 가운데서 재생산과정에 있는 재산이 아니라 재생산과정에서 분리된 재산이다. 기업경영과 자금순환 과정에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으나 확정적으로 결산되지 않아 회계 계산 및 자금원천과의 대응 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계산상으로만 기업이 보유하게 되는 재산이 바로 철수 재산이다.

철수재산은 ‘다음 결산기 지출’과 ‘손실금’으로 구분된다. 기업소 순소득은 일단 분배 처리되면 기업에서 분리되어 현실적으로는 기업 경영활동에 참가하지 않게 된다. 순소득의 분배는 보통 1년을 단위로 하여 이루어진다. 연말에 가서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청산되는 만큼 연중에는 순소득분배를 따로 계산하게 되며, 분배된 순소득은 확정 처리될 때까지 기업의 재산으로 계산되면서 철수재산을 이루게 된다. 다음 결산기 지출은 비용지출로 처리된 재산으로, 여기에는 ‘다음 결산기 비용’<181>, ‘건설 및 대보수비지출’<182>, ‘생산 준비비 지출’<183>, ‘사업비 지출’<184>, ‘예산 지출’<185>이 포함된다. ‘다음 결산기 비용’<181>은 실무적으로 국제통신료와 같이 연간 요금을 한꺼번에 지출하는 경우 해당 월에 원가가 높아지는 것을 고려하여 이 계정과목을 이용해 요금을 배분하여 계산하기도 한다. ‘건설 및 대보수비 지출’<182>, ‘생산 준비비 지출’<183>, ‘사업비 지출’<184>은 모두 원천이 조성되기 전에

25) 김철남, 「기업소재산의 순환과 그 촉진」, 『경제연구』, 1호, 2018, pp.38~39.

26) 오선희, 「사회주의경제에서 화폐 자금의 운동」, 『경제연구』, 3호, 2004.

27) 기타 화폐 재산은 즉시지불서, 우표, 엽서, 수입인자와 같은 화폐 재산을 뜻한다.

지출된 비용으로, 철수재산으로 분류한다. ‘예산지출’〈185〉은 예산제기관의 국가 예산로부터의 경비예산자금 공급을 위한 계정항목이다. 경비예산자금의 경우 중앙예산소속 기관은 재정성에서, 지방예산 소속기관은 도(시), 시, 군(구역)(구역) 재정 기관에서 공급받는다. 기업은 경비예산자금을 공급받으면 ‘예산 돈자리 출납 대장’을 통하여 계획과 항목에 예견된 대로 자금을 이용하며 연말에 결산서가 비준된 다음 예산지출실적을 확정한다. 이와 관련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국가 예산으로부터 예산자금을 공급받은 경우  
차변 〈162〉 (은행예금) \*\*\* 대변 〈224〉 (예산자금) \*\*\*
- 여비로 예산자금을 지출한 경우  
차변 〈185/4〉 (예산지출/여비) \*\*\* 대변 〈162〉 (은행예금) \*\*\*
- 연도 말 결산서가 비준된 다음 예산자금지출실적을 확정하여 상계하는 경우  
차변 〈224〉 (예산자금) \*\*\* 대변 〈185〉 (예산지출) \*\*\*

철수재산에는 손실로 소멸한 재산으로 인한 재산피해 손실〈188〉, 지난해 손실〈189〉이 포함된다. 손실금의 크기는 연중에는 확정할 수 없고 연말에 가서야 최종적으로 확정되므로 기업들에서는 그 시기까지 회계장부상에 계속 등록·계산하게 된다.

## 참고문헌

### 1. 북한 문헌

#### 가. 단행본

『재정금융사건』,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 나. 논문

강철수, 「사회주의 기업체들에서 류동자금 보장조직의 중요 요구」, 『경제연구』, 3호, 2016.  
pp.50~51.

김철남, 「기업소재산의 순환과 그 촉진」, 『경제연구』, 1호, 2018, pp.38~39.

김철민, 「주문계약에 기초한 생산물류통의 본질」, 『경제연구』, 2호, 2018. pp.24~25.

백관석, 「고정재산감가상각의 대상을 규정하는 요인」, 『경제연구』, 2호, 1991.

오선희, 「사회주의경제에서 화폐자금의 운동」, 『경제연구』, 3호, 2004.

최금희, 「류동재산의 분류와 구성분석」, 『경제연구』, 1호, 1999. pp.41~44.

허철환, 「고정재산에 대한 재정관리의 중요한 내용」,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경제학, 2015,  
제1호, pp.79~81.

#### 다. 기타

『로동신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역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방향에 대하여》를 하시였다」, 2021. 9. 30.

### 2. 국내 문헌

#### 가. 단행본

이종규, 「북한의 재정충격, 경제적 영향은?」, 『KDI 북한경제리뷰』, 2021년 1월호, p.49.

정석우 외, 『북한회계의 이해』, 삼일인포마인, 2019년 1월.